



# “강화 선원사터 공궐터 아니다”

동국대박물관 4차발굴 성과공개

## 건물배치 전형적 사찰양식 나한상·연화문기와 등 출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선원사 터인지 강화 천도시절 고려 임시 공궐터인지로 의견이 분분한 강화 선원사 터(사적 제259호)에서 이 곳이 절터임을 보여주는 유물과 건물터 등이 발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선원사 터에서 4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동국대 박물관은 12일 그 동안의 발굴성과를 공개하며 “유구 노출 상황과 출토 유물로 볼 때 현재 사적지로 지정된 터는 가궐터가 아닌 사찰터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우선 사적지가 금당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터(전면 38m, 측면 18m)를 중심으로 12종의 건물터가 좌우 대칭으로 조성돼 있는 점을 들었다. 사적지내 건물배치가 남에서 북으로 중문지-금당지-추정 강당지로 이어

지고 주변 건물터의 배치 역시 전형적인 사찰 건물 배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단 건물터에서 발견된 유물 역시 박물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전면 28m, 측면 17m 규모의 건물터에서는 연화문기와 범자가 새겨진 기와가 다량 출토됐다. 불에 탄화된 금니사경 조각과 목서사경 조각이 소형 청동 나한상, 두루마리 사경축의 마무리 금동장식품 등과 함께 나왔다. 박물관 측은 청동 나한상은 일반인들이 개인 신앙 차원에서 호신물로 지니기에 부적당하며,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박씨 또는 유씨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역시 가궐터라면 발견될 수 없는 유물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장 장중식 교수는 “명문기와나 확실한 금석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문헌자료로 볼 때 이차령 큰 구



◇소형 청동상, 불탄 금니사경 조각과 목서사경 조각 등이 나온 선원사터(사적 제259호) 동북단 건물터.

모의 절터가 강화도내에 있을 만한 곳이 없으므로 현재 터가 선원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화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사학자들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 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선원사의 위치가 <강화읍에서 8리>라고 나와 있는데 현 터는 10리가 넘는 잠 들 들어 ‘충렬사 뒷터가 선원사 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화문화원 남궁신 연구원은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충렬사 뒷터가 선

원사 터일 가능성이 90%가 넘는 다”며 “불교유물이 출토된 것은 가궐터 내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후 관심은 동국대 박물관에서 대장경을 보관한 판전지로 추정하고 있는 서쪽 지역에 대한 조사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쪽 지역 5천여 평은 현재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사적지 확대 지정 및 부지 매입 등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권형진 기자 jenny@buddhapa.com

## 고성 운흥사 괘불 보물 지정 예고

### 산청 울곡사 괘불탱도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훈련시킨 장소로 유명한 경남 고성 운흥사의 영산회괘불탱(사적)과 괘불을 넣어 보관하는 괘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14일 이와 함께 산청 울곡사 괘불탱, 신·구법 천문도 등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 영조6년(1730) 조성된 운흥사 괘불탱은 석가모니불이 화연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그려져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화기로 보아 당대에 화승으로 이름을 떨친 금어, 의겸 스님 등에 의해 조성됐다. 이듬해 조성된 괘불탱은 목서로 쓴 조성기가 남아 있으며, 정교하고 다양한 철제 장식은 당시의 금속공예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이에 비해 산청 울곡사 괘불탱은 보살로 보이는 한 분단을 모신 독존탱으로, 보관에 다섯 부처님이 안치된 게 특징이다.

권형진 기자

# “한국전쟁 때 180여 사찰 피해”

## 조계종 문화부 자료조사

한국전쟁 당시 몽땅 불탔거나 부분적으로 불탄 사찰이 당시 남한지역 사찰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계종 문화부가 밝힌 ‘한국전쟁 피해사찰 1차 문헌조사 현황’에 담긴 통계다.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태고사법’에 등록된 남한 지역 사찰은 모두 9699개. 조계종 문화부가 지난해 7월부터 교계신문, <전통사찰총서>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180개에 이르는 사찰이 방화나 폭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이들 사찰의 3분의 2 이상이 국군 작전 수행 중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아군에 의한 피해가 더 컸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1·4후퇴나 국군의 2차 북진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강원도와 경기도 한강이북지역 사찰의 피해가 컸고 각각 40곳, 27곳, 지리산 탐치산 토벌작전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전라도·북도에서도 73개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

사찰의 피해는 곧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파괴로 이어졌다. 전남 곡성 관음사는 국군의 작전 수행 중 방화로 인해 국보 273

호인 원통전과 그 안에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국보 214호), 20여 동의 전각이 불탔다. 순천 송광사의 국보 404호인 백운당·청운당과 조선 초기 건축양식의 결자으로 인정받던 국보 240호 장흥 보림사 대웅전도 방화와 폭격으로 불타 없어졌다. 강원도 원정사는 우리 나라 3대 종의 하나로 평가받던 선림원터 동종이 절멸보전을 비롯해 10여 동의 건물이 불타 때 함께 타버렸다. 그러나 경기도 봉선사의 경우 1932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조선사찰구분목록>에 등록된 45점의 불교문화재가 가운데 현재 목조아미타불상 등 4점만이 남아 있는 등 비정형 불교문화재의 피해는 집계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방부에 남아 있는 당시 군 작전일지, <조선사찰구분목록>과 현재 남아 있는 문화재의 비교, 해당 사찰이나 주민 증언 채록 등이 앞으로 함께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구 과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정확한 피해상황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원인이 규명되면 해당 사찰의 복원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삼국유사 초간본 일연 스님 사후 출간

### 채상식 교수 주장

<삼국유사> 초간본은 일연 스님 입적 후 문도들이 간행했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부산대학교 채상식(사진) 교수는 15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일연비를 건립한 훈구가 굳이 ‘부기’를 수록하면서까지 새로 간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삼국유사>는 일연이 내용항목 순으로 제1~9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그의 사후 일연의 계승자로 자처한 훈구가 자신의 의견을 보충하여 5권으로 나누고, 이를 토대로 초간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일연 스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삼국유사> 탄생 배경을 추적해 들어간 채 교수는 <삼국유사>에 앞서 간행한 <역대연표>는 “왕력편의 기재양식 등을 볼 때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 高僧 다시보기

## 원광법사와 민중불교

원광법사(圓光法師, 555~638)는 화랑도의 실천 덕목이 되는 세속오계라는 가르침을 주었고, 수나라에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글인 ‘결사표’를 지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고승이다. 법사는 진흥왕 대에 출가하여 진평왕 대에 왕과 민중들의 숭앙을 받으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 정신적인 사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민중들에게 현명한 고승이었다.

그래서 신라의 고승으로는 드물게 전기가 중국의 <속고승전>에 실렸으며 우리의 기록인 고본 <수이전>이나 <삼국유사>, <해동고승전>에도 행적을 남기고 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들 사서에 법사의 생애나 출생 신분 그리고 출가시기, 중국유학시기, 입적시기 등의 사실이 각기 다르

게 기록되어 있어서 법사의 삶을 읽는데 다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기록이나 역사적 상황을 종합해볼 때, 법사의 성씨는 설씨이며 신분은 6두품이었으며 13세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였고, 30여세에 중국에 12년간 유학하고 귀국 후 높은 교화활동으로 신



◇원광법사가 귀산과 추형에게 준 ‘세속오계’.

## 불교가르침 민중속으로 교화

### 화랑 실천덕목 ‘세속오계’ 유명

라의 국가발전에게 기여하다가 나이 84세 법랍 71세에 입적하였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간혹 법사가 당시 고품제 사회에서 6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승려로 출가하고 유학을 갔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사의 모든 행각은 애오라지 순수한 구도적인 열정과 국가와 민중을 위한 헌신이었다.

법사는 중국에 유학 가서 승인·담천·혜원 등의 당대 고승들에게 열반경·성실론 등의 경전을 배웠고 귀국한 후에도 신라의 왕실과 민중들의 절대적인 숭앙을 받았다. 법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교단 내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사회와 민중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법사는 귀산과 추형이라는 신라의 청년이 찾아와 교훈을 청했을 때 세속오계를 지어 주어 화랑도와 신라민중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게 하였다. 세속오계는 유교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법사의 독보적 창안해낸, 불교의 실천윤리인 보살계 정신의 표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법사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을 처음으로 가르쳐서 당시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에서도 민중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점찰법을 두고 점찰법회를 개최하여 민중들이 불교에 귀의하여 청정한 삶을 살도록 하였다. 이렇듯 법사는 불교가 전래된 이래 민중들에게 처음으로 실천적인 교화를 펴서, 불교의 실천화·대중화의 초석을 다진 고승이었던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 단신

### 불전국역연구 수강생 모집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불전국역연구원은 연구과정 및 연수과정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에는 화엄학 특강, 조사어록, 서장, 유식 등 네 강좌가 개설되며 21일까지 국역원 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강의는 9월 3일부터 시작한다. (031)980-7803

### 불교원전 2개월 강좌

보조사상연구원은 7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불교원전강좌를 개설한다. <보조선서> 강독(김종명 전 서강대 교수) 의상의 <법계도기총서> 강독(연구실장 인경 스님) ‘탈리아 불전 강독’(안승준 동국대 강사) 세 강좌가 열리며 강좌당 선착순 17명만 수강할 수 있다. (02)733-5315

유체이탈, 쿨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서 빛,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문 달리니, 미간과 맥락 차크라개발, 에너지 이체,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 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음광명 헤드폰, 사운드 지 등/미국 마이크로필사)

\*오라진동수선 (미국 오라시스시스템/중국CEM)  
\*광안정(말간성, 정적, 보라색, 순백색/미국 마이크로필사)  
\*다이내믹 코골 세드론 (미국 마이크로필사)

**메가플러스 명상기 효과 및 특징**

- \*차크라, 소추진 명상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메가플러스와 오라진동수선이 하 중 상단계 순서대로 기를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빛과 소리, 진동 느낌을 즐기거나 하면 됩니다.
- \*특별한 행법을 하지 않고도 빛과 소리, 진동을 느끼면서 위빠사나 명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메가플러스의 빠른 릴렉세이션 효과는 명상 이외 학습과 창의력, 깊은 휴식,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완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시간은 15분에서 120분까지 5분 단위로 변화시켜 21개 프로그램을 총 440개의 형태로 압축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 \*5개로 구성된 본체는 메가플러스 프로그램을 45개로 확장시켜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메가플러스는 사용자프로그램이 있어 자신에게 맞는 맞춤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구입시 쿨달리니 프로그램을 입력해드립니다.

\*전문의주신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와 카타로그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지리산 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당신의 **관** 격정되시죠?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토종 웅담과 비밀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상담문의 : (055) 963-9583 · 자료신청 (055) 355-562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띄우고 풀잎결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 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동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들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 승용차 운행: 전화약속 10분소요 역곡 1호선 하차→남부역쪽 1번 출구 (기업은행 정문)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드폰 : (018) 277-5592

국제전화 00753

이제부터 국제전화 거실 때는 00753 만 누르세요!

한국 → 미국 : 180원/분  
미국 → 한국 : 220원/분

안전하고 편리한 후불제 국제전화!  
전세계 280여개 지역 서비스중  
미국 로밍 개통! -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시고 요금은 저렴하게 한국에서 후불로 내시면 됩니다

미 국	180원	유 럽	380원
캐 나 다	380원	러 시 아	690-770원
일 본	290원	호 주	420원
중 국	760원	뉴질랜드	420원

■ 가입비, 연회비, 기본료가 없습니다.  
■ 할인시간대 통화비 30% 할인  
■ 이용문의 : 도시폰 고객센터  
TEL : 00753 또는 (02) 511-6333

**(주)도화텔레콤 Dohwa Telecom**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8 영빌딩  
http://www.dosiphone.net//  
E-mail : helpdesk@dositel.com